
입시 대비용 논술·구술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성찰

임철성 · 전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1. 논술·구술의 당위성과 현실성

‘통합 교과형 논술’에 대한 논란이 열풍처럼 우리 교육계를 휩쓸었다. 통합 교과형 논술이란 대체로 ‘특정 교과목(subject)의 내용에 국한되지 않은 주제나 개념에 관하여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서술형 평가’를 의미한다. 논술 그리고 논술형 구술(이하 ‘구술’은 심층 면접에서 제시되는 논술형 구술을 의미한다)은 이미 대학에서 입학 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해 오던 바이고, 논술에 상응하는 논술형 구술은 대체로 통합 교과형이었다. 이른바 상위권 대학에서 수험능력시험의 변별 비중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자 무언가 다른 변별력 높은 기제가 등장하리라 예상하고 있던 차에 ‘통합형 논술’이 대안처럼 등장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통합형 논술’에 대해 모든 의심과 비판이 쏟아지게 되었다.

통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논술·구술이 과연 교육적인 대안인가? 정책이란 진리가 아니라 대안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정책이란 그것이 가장

옳은 것인가의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가장 바람직한 대안인가의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통합적 논술·구술을 대학 입학 전형의 기제로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그 당위성과 현실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논술·구술 고사의 당위성을 우선 언어 교육의 전체적인 방향의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언어 교육은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언어 내용 교육에서 언어 사용 교육으로, 언어의 내적 구조에 대한 교육에서 언어의 기능 교육으로 전환하였다. 다시 말해, 글의 단락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각 단락의 내용을 통해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 글의 전체 내용을 이해해 오던 지금의 국어 교육이 이제는 그 글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즉, 그 글의 내용을 어떤 문제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교육으로 초점이 옮겨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틀의 변화, 즉 패러다임의 변화로 설명한다. 이 변화에는 현대 지식이 폭발하는 사회에서 지식이란 무엇인가, 지식이 인간에게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체적으로 교육이 내용(what)에 대한 교육에서 사고(cognition)에 대한 교육으로 변화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은 필요한 지식의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지식을 내가 혹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석하여 받아들일지냐 즉 사고하느냐 하는 것이 중심이다. 전자가 내용의 습득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후자는 내용의 사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의 방향을 이끄는 대학 입학 전형이 통합형 논술·구술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일단 교육의 변화를 수용한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통합형 논술은 통합 사고를 바탕으로 한 자기주장으로, 단순히 하나의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차원을 넘어 그 글의 내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다른 지식들과 통합하여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주어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학교 국어 교육이 엄청난 글의 내용을 되도록 많이 경험하도록 하여 내용 이해를 조장하는 방식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통합 논술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지금의 국어 교육은 공교육이나 사교육을 막론하고 많은 글을 읽혀 유사한 내용이 나올 경우를 대비하게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엄청난 글의 내용을 각각 이해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글을 통해 해당 유형의 글을 읽어 내는 혹은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경우는 드물다. 문학 작품의 경우도 그러하다. 일단 많은 작품의 내용을 경험하게 한다. 유사한 유형이나 특징의 작품을 뭉뚱그려 대표적인 작품을 통해 전체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이른바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학습량은 엄청나고, 사실 비효과적이다.

통합형 논술은 이러한 학습의 구조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게 할 수밖에 없다. 통합형 논술·구술을 위해서는 많은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보다는 몇 가지 글을 가지고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물론 많은 혹은 대부분의 국어 교사들은 통합형 논술·구술을 위해서는 지금의 교육 방식, 즉 많은 글을 개별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수업 방법 이외에 이것을 다시 통합하도록 하는 수업을 또 해야 한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닥쳐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 위한 수업을 위해서는 적어도 매우 비효율적인 기존의 수업을 일부분 포기해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논술·구술 고사를 통해서 학교 수업이 이러한 당위성에 근거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대인 듯하다. 다시 말해, 대학 입시로 통합형 논술·구술이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되자, 상당수 교고가 수시와 정시 모집에 대비해서 논술·구술반을 운영하고 있고,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하거나 독서 지도 등을 통해 평소 창의성을 높여 줄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대학이 치르려는 논술·구술이 여러 고교 교과 과정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통합 교과형’이기 때문에 잘만 하면 고교 수업 방식이 지식 암기형에서 논리 전개형으로 바뀌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5. 7. 31.)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교, 학부모, 학생, 대학 모두 논술·구술 고사 실시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이제 실현 가능성을 기늬하는 현실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우선, 대학

입학 전형 기제로서의 측면이다. 대학 입학 전형 기제를 다시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내용에 대한 이해 수업은 현재의 학교 수업(사교육의 수업을 포함하여)에서는 지식의 내용을 묻는 이른바 지필형 본고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측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수업은 내용 위주이면서 또 이른바 지필형 본고사는 안 된다고 하니 대학 입장에서는 이도 저도 어려운 형편이다. 학교 교육이 지식 내용 이해와 암기를 중심으로 한 것은 오랜 교육적 관행이면서 한편으로는 학교 교실이 대학 입시와 타협하면서 혹은 대학 입시를 핑계로 대면서 수업의 형태를 관행대로 이끌어 급격한 교육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인성이나 혹은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이 특별 활동의 기록, 체육 활동 등을 포함하여 전인 교육의 여러 요소를 입학 사정의 기준으로 측정하고자 하면 학교가 초등학교부터 대학 입학을 대비해 준비해 오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 대학 입학 전형이 전혀 별개의 것이 되게 되니, 이 또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야 한다. 또 어떤 식이든 급격한 변화는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대학 입학 정책은 가능한 한 관행을 존중한다.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변하는 교육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다. 어떻게든 교육의 변화가 학교 교육에 직접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는 변별력 있는 입학 전형 기제의 측면이다. 수능이 9등급이 되고, 내신이 9등급이 되더라도 많은 대학은 대학 입학 전형에 큰 문제가 없다. 두 개의 등급을 적절하게 조화하면 변별적인 잣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위권의 대학은 변별적인 잣대를 가질 수 없다. 예를 들면, 수능 1등급, 내신 1등급처럼 수능과 내신의 등급이 거의 흡사한 지원자들이 모이게 되면 이들을 변별하기 위한 잣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논술·구술이다. 지필형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때 이러한 방법 이외에 다른 변별력 있는 잣대를 가질 수 있는 아이디어는 없어 보인다. 물론 영어 해석 능력이나 수학 문제 풀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주된 문제들은 지필형 본고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유형은 일단 논의에서 제외하자. 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수준을

넘어서는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경우도 별도의 교육을 요구하기 때문에 역시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학교 현장의 측면을 살펴보면, 통합 교과형 논술·구술은 지금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단일 교과 중심의 수업을 전면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의 수업 방법, 수업 내용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한다. 혹은 지금과 같이 단일 교과 중심의 수업을 계속하자면 정규 수업 이외에 통합적 사고와 그 표현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껏 교육 과정을 통해 누누이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학교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합형이라는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개별 교과 중심의 교육 과정이라는 현재 공교육의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feasible) 면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전국국어교사모임(2005: 188))라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교사의 지적처럼 ‘우리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사고력을 길러 주는 교육, 토론 교육, 학생 활동 중심 교육 등을 강조하였다. 그것들이 제대로만 된다면 사회적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논술의 유형과 깊이는 정리되지 않겠는가?’라는 반론을 하기도 한다. 문제는 한 교사의 고백처럼 교사의 능력과 여건이 이것을 수용할 만한가에 있다는 것이 솔직할 것이다.

난 올해 고3 담임이다. 그러면서 속으론 ‘논술썩이야’ 하면서 심리적으로는 부담 없이 접근해 왔다. 그러나 막상 수시 모집에 접어드니(2년간 가르쳤는데도) 하나같이 사실 기관의 통제 속으로만 빨려 들어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야 교사 여건을 탓하겠지만) 이유는 간단하다. ‘내가 책임질 능력의 밖’이었으니(전국국어교사모임(2005: 189~190)).

그러면서도 뜻있는 교사들은 “물론 논술이라는 학생 선발 방법이 대화와 토론 중심의 수업이 일반화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공교육을 교육의 본질에 맞게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은 나의 간절한 바람이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교사들의 주저와 달리 학원에서는 ‘서울대 입시는 논술 본고사다!’라고 외치면서 수능으로 기능이 약화된 학원의 생존 돌파구를 마련하

고 있다. 학원들은 발 빠르게 대비 전략, 고득점 전략 등을 현란하게 그럴싸하게 포장한 다음 입학 설명회 등을 통하여 과대 홍보하여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더욱이 학부모들은 학교를 불신하여 모든 대학 입학 대비 교육을 사교육에 의존하려 한다.

결국 당위성과 현실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통합형 논술·구술은 바람직하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학교는 학원처럼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과 수업을 통해 바람직하게 감당해 낼 자신이 없다.

2. 정형화된 답안지, 정형화된 사고

학원 교육 혹은 학교의 대입 준비용 논술·구술 교육이 논술·구술에 바람직하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논술은 기본적으로 방대한 양의 독서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에 근거를 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학원에서처럼 정형화된 방식의 논술 지도로 논술이 의도하는 창의적, 비판적인 사고가 과연 얼마만큼 신장될지 의문이다. 논거 제시를 위한 글의 구조, 필요한 배경 지식 이용, 자신의 논거를 논리적,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방법 등에 바탕을 둔 논술문 작성 및 수업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논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에서 벗어나 내용 없는 뼈대와 방법론만을 가르칠 공산이 크고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의 전개라는 큰 목적에서 벗어나 오히려 정형적이고 고착화된 사고의 정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전국국어교사모임(2005: 194)).

학원 교육 혹은 입시 대비용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답안지의 특징에 대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체 글이 4개의 정형화된 단락으로 구성된다. 첫째 단락은 서론 단락으로서 ‘이 글은 00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생각에 대해 내 의견을 말해 보고자 한다’는 식의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둘째 단락은 본론 첫째 단락으로서 글의 내용을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하여 내용을 요약하거나 정리하여 재진술하는 단락이다. 셋째 단락은 본론 둘째 단락으로서 내용과 관련하여 예시를 들어 자기주장을 하는 단락이다. 이 경우 대부분 상대 주장에 대한 논박이나 제시된 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근거로 하여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근거를 들어 제시한다. 넷째 단락은 다시 주제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결론을 맺는다. 논술 답안지를 채점하다 보면 모두들 답을 외웠나 하는 느낌이 든다.

둘째, 예시 내용이 대체로 비슷하다. 예시를 들도록 하는 것은 지원자의 창의성을 점검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주제와 관련하여 일상생활에서 사례를 찾거나 혹은 다른 지식을 통합하여 해당되는 내용을 접목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예시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은 동일한 답안을 여러 번 되풀이하여 익숙할 정도로 풀어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주장과 근거가 정형화되어 있다. 어쩌면 한결같이 찬성이나 반대의 주장과 근거가 비슷비슷하다. 창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유명한 P학원 교재의 한 부분을 인용하여 살펴보자.

사형 제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Guide : 사형 제도에 대한 단편적인 생각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러므로 사형 제도는 존속되어야 한다.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와 같은 견해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이 문제는 2가지 쟁점으로 요약된다고 볼 수 있다. 사형 제도 존속을 주장하는 일반적인 근거로는 ① 사형은 형벌 중 가장 무서운 극형이므로 범죄를 억제하는 수단이 되며, ② 극악한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근거들은 여러 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사형이 다른 형벌에 비해 범죄 예방력이 크게 차이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의 존엄성에 위배된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는 모범 답안을 제시해 놓았다. 학생들은 주어진 제시문이 사형 제도에 관한 것이면 이와 유사한 답을 암기하여 쓴다.

넷째, 논리 전개에서 주어진 제시문을 이해하고 해석 혹은 비판하여 자

기의 주장을 전개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그것을 이미 기출 문제로 해결해 보았던 답안의 방식대로 서술한다. 그러니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없다.

결국 학원의 논술·구술은 일정한 유형의 답안을 외워서 쓰는 식이다. 물론 이러한 답안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논술·구술은 답이 맞고 틀리고를 살피기 위한 고사가 아니다. 그러므로 정형화된 답안은 물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논술 고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소속 김경범 연구교수는 “채점 결과 10% 미만의 학생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대 이하였다”며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을 외워 썼거나 예시가 너무 뻔했다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2005. 6. 8.

‘생명 공학의 발전’에 대한 논술에서 ‘줄기세포 연구는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논지의 답안을 쓴다. ‘어린왕자’ 중 ‘길들이기’에 대한 글이 지문으로 제시됐을 때, 답안에 예시로 김춘수의 ‘꽃’을 인용한다.

대학에서 논술 채점을 담당했던 교수들은 위의 두 경우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거나 감점 당할 수 있다고 충고한다. ‘학원에서 배운 정형화된 논술’의 특징을 보이기 때문이다. 교수들은 “학원에서 훈련받은 논술은 누가 봐도 티가 난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학원에서는 단기간 모범 답안 위주로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답안의 유형이 비슷하고 기계적이다. 실제 이런 답안은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학원 논술의 대표적 특징은 인용되는 예시나 논거가 서로 비슷하다는 점이다. 강태중 중앙대 입학처장은 “테러를 논제로 내면 그 예로 이슬람과 종교적 갈등을 예로 들고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결론짓는 게 공식처럼 나온다’며 “80% 이상이 비슷한 답안을 쓰는데 이는 자기 생각 없이 학원에서 가르친 모범 답안을 떠올리면서 글을 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몇 년간 논술채점위원을 지낸 한 서울대 교수는 “수년 전 논술에서 ‘어린왕자’의 어린 왕자와 여우의 대화를 제시하고 인간 소외에 대해 논술하게 했는데 10명 중 6명은 김춘수의 ‘꽃’을 인용하는 등 사실상 거의 같은 답안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경우 창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점수를 절반 정도 깎았다고 밝혔다.

자기주장이 확실하지 않고 양비론, 양시론을 취하는 것도 학원 논술이 감

점당하는 이유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늘어놓으면, 그 문제에 대한 자기 나름의 생각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셈이기 때문이다.

학원에서 배운 어설플 배경 지식도 논술 답안을 망치는 요인이 된다. 정민(국문학과) 한양대 교수는 "학원에서 단기간에 배경 지식을 배워서 그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며 "외운 배경 지식을 무작정 늘어놓다 출제 의도에서 벗어나는 학생들이 있다"고 밝혔다. 손동현 교수도 "무엇에 관해 논하라고 했을 때 초점에 맞추기보다는 벼락치기로 주위들은 것을 짜깁기 해서 쓴다"며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2005. 7. 29. 오전 10:52, 영재교육뉴스

답안이 정형화된다는 것은 문제에 대한 사고 혹은 해결책이 정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의 정형화는 학생들에게 실제 생각보다 더 큰 악영향을 미친다. 사고가 정형화된다는 것은 학생들의 창의성이 말살된 것이다. 20세기가 내용 지식으로 살아왔다면 21세기를 살아가야 할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새로운 지식 혹은 문제 해결 방법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창의성이다. 정형화된 문제 분석, 정형화된 서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정형화된 사고는 창의성을 말살하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세계에 적응하기 어렵게 한다.

정형화된 사고는 사고의 다양성, 혹은 문제 해결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정답이든지 아니면 오답이든지 하는 흑백의 사고를 가지게 한다. 이러한 사고는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를 어렵게 하여 더불어 사는 데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된다. 이러한 학생들은 장차 조직에 적응하기 어렵다. 이들은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패거리 문화를 조장하고, 또 자기 생각만이 가장 옳다는 자기중심적인(타자배타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 우리 학생들이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되어 가는 데는 이러한 학교나 학원 교육이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설령 그것이 답이 아니더라도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의사를 교환하게 하고, 서로의 사고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구술과 논술 지도에서 부가적으로 얻게 되는 중요한 반사 이익이다. 자꾸 새로운 가능성을 자극함으로써 창의적인 생각을 북돋우는 것도 구술과 논술 지도의 반사 이익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하여 한국민의 논술 능력—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사교육 시장’ 탓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여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교육 시장의 경제인이나 소비자를 탓하지 말고, 공교육을 통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완화 내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전국국어교사모임(2005: 196)).

그러나 학원은 단시간 동안에 학생들에게 점수로 높은 효과를 나타내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업 방식을 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3. 답은 학교 교육이다

--- 교과외의 기본 개념 정립을 통한 논술·구술 대비의 수업 방법

그동안 일부 규모가 큰 논술 학원의 경우 학원 논술 교육도 단시간 내에 입학 전형에서 몇 점의 점수를 올리는 데는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 대학이 논술·구술 고사를 통해 논술·구술 문제 출제와 그 채점에 어느 정도의 쌓여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상 학원의 단기간에 걸친 교육은 성과를 내기 어렵다. 단적으로 구술과 논술을 출제하고 채점하는 교수들은 학원 출신들이 아니다. 그리고 필자의 경우만을 가지고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학원 논술 교육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답안지를 구분해서 채점할 만한 능력도 있다. 또 늘 강조되었듯이 ‘학원식 답안지’ 즉 정형화된 답안지는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없다.

더구나 학원 프로그램은 학교처럼 교과를 연계할 수 없다. 논술은 논술만을 다룬다. 학교 교육이 학원처럼 논술을 논술만으로 다루려 하면 다시 대학 입시만을 위한 논술·구술 교육 전문가 시장인 사교육으로 학생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학교는 학교 나름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교과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학원 프로그램도 단기 프로그램과 장기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학교도 마찬가지이다. 단기 프로그램은 기존 문제 풀이, 예상 문제 풀이, 규격화된 논술문 작성 등으로 이어진다. 장기 프로그램은 읽기를 통해 사고력을 강화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 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부정적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논술은 논술로만 끝난다. 학원이 학교처럼 학생들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한 가지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강제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프로그램은 학교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오히려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또 대부분의 학원들은 중소 규모이고, 그래서 교사의 질이나 교육의 질도 형편없이 떨어진다. 이들 교육은 검증받은 바가 전혀 없다. 문제는 대 규모의 이른바 잘나가는 학원들이다.

학원의 단기적인 대학 입학 대비 방법을 학교가 따라간다면 대학 입학과 관련하여 학교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대학 입학 정책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육을 유도하려는 의도나 또 그것을 기대하는 교사들, 다시 말하여 대학 입학 정책이 바뀌어야 우리 교육이 산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의 바람도 무산이 되게 된다. 학교는 학교 나름의 정상적인 교육 속에서 대학 입학을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야 한다.

더군다나 학교는 학원과 교육의 질에서 비교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교사의 자질은 학원 교사의 자질과 비교할 수 없다. 다만 열의의 문제이고 방법의 문제이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이 우리 교사의 여건을 살펴볼 때 논술·구술을 위한 교사 교육 지침서(매뉴얼)가 필요하다.

학교는 3년 동안 체계적인 수업을 통해 논술·구술, 즉 통합적 사고 능력의 신장에 대비할 수 있다. 학원은 매일 혹은 매주 두어 시간을 수업하지만 학교는 매일 7, 8교시의 수업을 한다. 학교의 모든 수업 시간에 통합적 사고를 위한 일정한 수업의 내용과 방법이 마련된다면 학원 교육은 학교 교육을 절대 따라올 수 없다. 더구나 학교는 내신과 관련하여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욕구와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 적절한 평가 도구의 개발과 평가에서 논술·구술 평가의 시행을 통해 질 높게 학생의 학습열을 자

극할 수 있다.

결국 논술·구술은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발표의 요령과 쓰기의 체계 및 맞춤법과 같은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단기간에 배울 수 있을 것이나, 사고의 내용과 그 내용에 대한 조직 및 구성은 학교에서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익혀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형편을 살펴보면 교사 지침서나 3년간의 체계적인 교육, 토론 교육, 독서 교육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학교들이 잘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논술·구술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필자도 「광역시 교육청 장학 자료 2004-483호 ‘문제 해결의 과정을 밟아 가는 토론 교육」 등을 통해 어떤 절차의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의 주장을 전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이전까지 학교가 학원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흉내 낼 따름이어서 학교의 논술 지도도 학원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래서 학원 논술 교육을 학교가 따라잡을 수 없다는 소리까지 나왔던 것이다. 이제 많은 학교들이 논술·구술 지도를 위해 장기적인 체계를 세워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그 효과는 논술·구술이 입학 전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대상 학생들이 입학 전형을 할 때인 2008학년도에 나타나리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교과 수업 시간을 통한 사고력 통합 지도에는 별 처방이 없다. 실제로 교육인적자원부나 일부 교과 교육 전문가들이 논술·구술이 입학 전형으로서 중요하게 됨으로써 교과 수업 방식이 바뀌어져서 단순 암기식이나 단순 이해식의 수업이 아닌 사고력 중심, 문제 해결 중심의 수업으로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학교는 개별 수업에 대하여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술·구술에 대비한 학교 수업의 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수업 모형은 구술을 중심으로 것이나, 이 모형은 논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 수업 구조의 변화——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지도

지식 암기 위주의 수업과 문제 해결 능력 위주의 수업을 학생들에게 축

구 동아리에서 축구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과 축구 교실을 개설하여 축구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에 대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축구 동아리에서는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축구 능력이 점진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 축구 교실에서는 축구 경기를 많이 하는 대신 축구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축구 경기의 과정에 필요한 기술들을 지도함으로써 축구 능력의 향상을 꾀한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 모든 문제를 많이 풀어 보아야 한다는 식으로는 구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재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대한 지도가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 수업의 구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문제의 확인

주요 개념, 원리, 사실에 대한 지식의 습득

개념, 원리, 사실에 대한 지식의 재구성

발표

* 문제의 확인

흔히 ‘문제를 잘못 보아서 틀렸다’고 하는 학생들의 변명은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이나 수학의 경우 특히 문제 파악이 안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이는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모두 마찬가지이며,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모두 마찬가지이다. 문제 파악 훈련 즉 문제의 확인 훈련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더라도 구술 면접에서 질문을 하면 학생들은 문제를 확인하는 대신 그와 관련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한다. 무언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 듯 보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다.

논술에서 제시된 읽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읽기 내용의 이해는 읽기 내용을 통해 단순히 내용 이해의 차원을 넘어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읽기는 하지만 주어진 내용을 통해 확인해

야 할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은 부족하다. 그러니 주어진 글의 문제와 상관없이 일단 주제가 파악되면 글의 내용과 상관없이 자기가 기준에 아는 것만을 바탕으로 자기주장을 해 간다.

다음은 한 대학교의 2005학년도 구술 문제이다. 문제를 분석하여 확인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에게 승용차를 선물로 주려고 한다.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세 개의 보이지 않는 문 앞에서 승용차가 있는 문을 맞춰야 한다.

세 개의 문이 있고, 그 중 하나의 문 뒤에는 승용차가, 나머지 두 개의 문 뒤에는 염소가 있다. 출연자가 이 중 승용차가 있는 문을 선택하면 승용차를 받을 수 있지만, 염소가 있는 문을 선택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A, B, C 세 개의 문 중에서 출연자가 A를 선택했다고 가정하자. B와 C 중에 적어도 한 문에는 염소가 있다. 어디에 염소가 있고 어디에 승용차가 있는지 미리 알고 있는 진행자는 B, C 중에서 염소가 있는 문을 열어 출연자에게 보여주고 원래 선택 A를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선택한 문을 바꿀 것인지 물어본다. 이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다음은 문제를 확인하여 답을 구성하는 한 방식을 보여 준 것이다. 문제는 한 대학교에서 2005학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이다.

문 :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한다면 어떤 것을 소개하겠나?

답 : “여기서 외국인 친구란 00을 의미합니다. 한국 문화란 00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친구와 한국 문화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외국인 친구의 측면에서는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 문화가 가지는 의의가 무엇인가, 어떤 측면에 호기심이 있을 것인가를 고려하겠습니다. 한국 문화는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세계 속의 한국으로서 한국을 세계에 대표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하겠습니다…….”

* 주요 개념, 원리, 사실에 대한 지식의 습득

교과서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개념, 원리, 사실이 지식으로

서 존재한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들을 외우도록 하기도 벅하다. 그러나 실제 아주 많은 개념과 원리, 사실에 대한 지식의 암기는 오히려 구술에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보다는 주요한 개념, 주요한 원리, 주요한 사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요한 개념, 원리, 사실은 그와 관련된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핵이 된다.

한 입시 학원에서는 2005학년도 서울대학교 면접 구술 고사 문제 중에서 정시의 자연 계열 문항 ‘출제 의도 및 문제 경향’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1. 2005년 정시 모집의 구술 및 면접 고사에서는 중등 교육 과정에 소개되고 있는 과학적 개념과 이론에 대한 수험생들의 정확하고 심층적인 이해를 평가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두었다.

2. 수험생들에게 제시된 기본 문항의 경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 개념의 정립으로 또는 이를 응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다양한 후속 질문과 추가 질문을 통해 수험생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종합적인 문제의 해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일 수험생이 답변을 잘 못하는 경우 유도 질문이나 보충 질문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도록 하였다.

3. 출제 문항의 소재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기본 개념과 내용 내에서 선정하였다. 특히, 중요한 주제 중 기계적인 암기나 피상적인 이해 수준에서 다루어지기 쉬운 내용을 포함시켰다.

4. 이번 정시 모집 면접 및 구술 고사 문항 출제에서도 과학이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며 자연 과학을 공부하는 데 기본 개념과 원리, 자주 이용되는 공식 등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노력하였다.

대학에서 구술 면접을 평가하는 심사자는 교수들이다. 이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전문 지식을 알고 있는지에 크게 관심이 없다. 오히려 입학한 대학생들의 수준을 통해 고등학교에서 배운 많은 지식들이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그것들이 피상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을 것이다. 이들 앞에서 단편적인 지식의 화려함을 내보이는 것은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

이다. 그러다 보면 자칫 추가 질문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확인받게 된다.

정작 필요한 것은 많은 지식이 아니라 주요 개념, 원리,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다. 교수들은 학생들이 기초나 기본 개념, 원리,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파악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대학에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또 새로운 지식을 재생산해 내기를 원한다. 많은 지식보다 꼭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 과학에서는 주요한 내용에 대한 실험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술에 대비하여 책을 읽히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구술에 대비하기 위하여 책을 많이 읽힌다. 그러나 많이 읽는 것보다 제대로 읽는 것이 구술 대비에 중요하다. 제대로 읽히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더 큰 의미가 있다. 책은 많이 읽는데 사고 능력은 떨어지는 것이 우리 시대의 학생들이다. 많이 읽지만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술을 대비하여 책을 읽히는 이유는 책의 내용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잘못 이해하는 선생님들이 있다. 어떤 책의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 권의 책을 읽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하는 분들이다. 내용에 익숙해지는 것은 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그 많은 책들 중에서 어떤 책이 나올지 모르니 무조건 많은 책을 읽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사고는 축구 동아리에 가서 축구 경기만 열심히 하다보면 축구 능력이 향상된다는 사고와 일맥상통한다.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대비가 될 수는 있지만 효과적이지 못하다.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의미 있는 책 10권을 선정하여 제대로 읽히는 것이 중요하다. 제대로 읽히기 위해서는 사고의 과정에 대한 읽기 안내와 지도가 필요하다.

*지식의 재구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들을 재구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뚝뚝

그러서 이해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멩텅이로 지식을 이해하는 것, 곧 개념망들의 연결체로 이해하는 것이 장기 기억에 필수적이다.

지식을 재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상사에 주요 지식을 적용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토론이나 모둠 활동을 통해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토론은 해당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내 주장과 다른 사람의 주장에 대한 논박을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교육 토론이라고 한다. 모둠 활동은 여러 사람이 이 생각 저 생각을 내어 놓아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니 구술 면접에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을 정리하는 데 적격이다. 물론 모둠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말이다.

*발표와 서술

발표의 경험은 특히 구술에서 중요하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발표를 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발표를 하지 않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몰라서이다. 이때는 모른다는 내용을 확인시켜 줄 것이 아니라 접근 방식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둘째, 잘 몰라서이다. 이때는 생각의 단서들을 제공하여 사고를 유도시켜야 한다. 셋째,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발표를 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 세 번째이다. 교사들은 정말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하기보다 습관적으로 질문을 던진다. 학생들이 답하지 않아도 조금만 기다리면 교사가 답을 해 준다. 괜히 잘못된 답을 냈다가 창피당하느니 입을 다무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어떤 것을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입이나 손으로 표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다. 표현함으로써 학생들은 기존의 지식을 자기화하는 발판을 마련한다. 이 발판이 장기 기억의 발판이 된다. 글쓰기 원칙에 맞지 않더라도, 말을 더듬거리더라도 일단은 익힌 지식이나 사고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고 그것을 수정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 참고 문헌 |

임칠성 외 7명(2004), ‘문제 해결의 과정을 밟아 가는 토론 교육’,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 자료 2004-483호.

임칠성·원진숙·심영택·이창덕(2004), “말뭇에서 말짚되기”, 태학사.

임칠성(1999), ‘토론을 통한 논술 지도 연구’, “새국어교육” 57집, 한국국어교육학회.

전국국어교사모임(2005), ‘서면 대담, 논술을 논하다’, “함께 여는 국어교육” 2005년 가을호.

기타 학원 교재.